

# 신학기 광주 대학가 부동산 시장도 들썩

### 1년새 원룸 월세 값 16% 올라...보증금 적어도 월세 비싸 저금리에 임대인 전세보다 월세 선호...평균 35만원 이상

광주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학기를 앞둔 지역 대학가 부동산 가격도 요동치고 있다. 무엇보다 대학가 원룸 전세 매물은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신축 주택의 경우 월세가 지난해보다 10% 이상 상승하고 있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7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광주 지역 대학가 일대 전용면적 23.1㎡ 규모의 원룸가격은 보증금 200~300만원에 월세 30~35만원 수준이다.

지난해와 비교했을때는 월세값이 16%(4만원)정도 올랐다는 것이 대학공인중개사들의 전언이다.

광양에서 올라온 대학생 박모씨(25)는 “새로 지어진 신축 건물들이 월세와 보증금을 높이니 낡은 건물들도 덩달아 가격을 올리더라”며 “4만원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할수 있지만 1년이면 48만원이니 대학생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뿐이다”고 설명했다.

광주지역 대학가 주택 가격 상승세는 특정대학과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추이다.

광주 서구지역에 소재한 대학을 다니는 권소연씨(22·여)는 “새학기만 되면 대학가에는 비싼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저렴한 방을 찾아 다니는 ‘월세난민’ 들로 가득하다”며 “벌써부터 다음학기에는 또 내년에는 월세가 얼마나 오를지 무섭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광주지역 대학가 원룸전세 품귀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국내 모바일 부동산 중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역 내 대학가 전세 매물은 전남대학교 인근 80여 곳, 조선대학교 10곳 등 전체 100여개 매물이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이들 전세 매물은 모두 원룸 이상 주택으로 평균 가격 3,000~5,000만원 사이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어 지역 대학생들에게는 ‘논외 매물’이 되고 있다.

전남대학교 인근 부동산 업체 관계자는 “대학가에서 원룸 형태 주택의 전세는 보기 힘들다”며 “대부분 투룸이 상이어서 행여 매물이 나오더라도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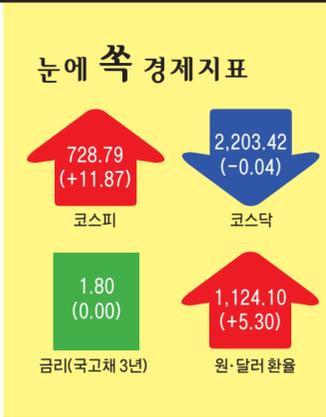
이런 가운데 광주지역 내 대학가 원룸 임대료 인상은 지난해 가파르게 상승한 광주지역 내 부동산 가격과 저금리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광주지역의 주택 매매가격은 3.88% 올라 5대 광역시 중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택과 함께 오피스텔 가격도 올랐다. 지난해 4분기 기준 광주지역 오피스텔 월세가격은 0.24%·전세가

격은 0.33% 상승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 보였다.

또 저성장·저금리 구조가 고착화되며 집주인이 전세금을 투자해 높은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진것도 대학가 월세가격 인상에 영향을 끼친것으로 풀이된다.

중흥동 공인중개사 한 관계자는 “저금리 시대에 임대사업자가 월세를 선호하는것은 당연하다. 또 대학가 인근에는 나이가 들어 월세로 가계를 꾸리는 집주인들도 많아 전세 물량은 거의 없다고 보된다”며 “건물주들이 높은 월세를 받기 위해 최근 이른바 ‘풀옵션방’ 로 리모델링 해 매물로 내놓고 있어 대학가 월세 가격 상승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송수영 기자



### 중진공 광주지역본부 기술사업 역량강화 신청 모집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가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에 참가할 중소기업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은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해 사업화 유망기술 보유기업을 선발하고, 선발기업에게 사업화 기획, 시장검증, 시장진화형 기능개선 지원 및 추가 연계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자체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업 맞춤형 사업이다. /길용현 기자

### 이재홍 중기지방청장 취임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운임”

이재홍 제19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취임했다.

이 신임 청장은 진도 출신으로 서강대학교 화학공학과, 영국 맨체스터대(과학기술정책학박사)를 졸업하고 27회 기술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국 산업기술정책과장,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혁신정책관 등 핵심요직을 역임했다.

이 신임 청장은 “경제기반이 취약한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길용현 기자

# 규제자유특구 지정 대비 본격화

### 광주TP, 혁신성장사업 수요조사 실시 규제특례·규제혁신 3중세트 집중 전망

광주시가 중점 추진 중인 현안 사업들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계획 수립에 나선 가운데 광주테크노파크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본격 대응에 나섰다.

광주테크노파크는 규제자유특구 혁신성장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오는 20일까지 실시한다.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돼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이다.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중 규제에 의해 어려움을 겪는 혁신성장 사업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세제 지원이 핵심이다.

최근 규제자유특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지역 기업들의 기술개발, 사업화촉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규제특례(201개)와 규제혁신 3중 세트 (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로 인해 기업들이 혁신기술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자유특구의 활성화 및 관련 기업의 규제특례 지원에 필요한 R&D, 비R&D, 인프라에 대한 예산도 계획된

만큼 지역 내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가 요구 된다.

광주테크노파크 김성진 원장은 “우리지역 기업들이 자유로운 영역에서 만능 혁신기술을 개발, 시험·인증,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매출 성장이 지역산업 활력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산·학·연·관의 협력을 통해 활기 넘치는 우리 지역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규제자유특구 혁신성장사업의 수요조사는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jtp.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지역 내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 기관, 단체 등도 신청이 가능하다. /길용현 기자



산단공 지역본부.

### 산단공 지역본부,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 본부는 최근 북부소방서와 공동으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산단공 지역본부는 첨단국가산단 1단지 내 IBC 지식산업센터 건설현장을 방문,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건설근로자를 격려했다. 지식

산업센터는 2020년 3월 준공을 앞두고 시공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이행만 산단공 지역 본부장은 “모든 사고는 사소한 방심, 작은 실수에 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며 “동절기 공사의 안전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길용현 기자



KT는 국내 인공지능 기기 '기가지니'에 영어학습 콘텐츠를 확충했다고 7일 밝혔다. /KT제공

# KT, 기가지니 영어학습 콘텐츠 확대

### 580권 영어동화로 편성...육아가정에 유용

KT가 국내 인공지능(AI) 기기 '기가지니'에 영어학습 콘텐츠를 확충했다.

7일 KT는 영어교육에 관심이 많은 육아가정을 위해 기가지니 영어교육 서비스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콘텐츠 강화를 통해 대교, 아람 등 6개 대형 출판사들의 책을 읽어주는 '동화 오디오북' 서비스의 일부도 영어 콘텐츠로 제공된다.

총 3,018권의 동화 콘텐츠 중 580권을 영어동화로 편성했다. 동화 오디오북은 부모가 동화를 읽어주지 않아도

기가지니가 동화를 들려주기 때문에 육아가정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KT가 지난 2017년 12월부터 제공중인 '기가지니 핑크퐁 영어 따라말하기'는 최근 빌보드차트에 4주 연속 오르고 있는 '베이비 샤크' 인기 히트곡이 최근 이용률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 서비스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기 캐릭터와 AI 음성인식 기술을 접목해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학습 콘텐츠다.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는 단계에 맞

춰 소리익히기, 단어배우기, 문장따라하기 순으로 파닉스, 워드파워, 핑크퐁 퀴즈, 마더구스 4가지 카테고리에 따라 엄선된 53개 영어 동요를 제공하고 있다.

AI 기술을 접목해 문장과 단어를 따라 말하면 정답 유무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영어 단어 또는 문장의 발음 수준에 따라 피드백까지 제공한다.

김재희 KT AI사업단장은 “아이들의 영어공부가 육아맘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KT 기가지니가 집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재미있게 영어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송수영 기자

전남매일 연중 일자리 창출 캠페인

## 여러분의 취업성공, 활기찬 경제도시 남구가 함께합니다

남구  
일자리박람회

607-2672

취업상담  
및 알선

607-2675

남구  
공공일자리

607-2673

남구 취업지원센터